

'미나리' 'BTS'가 방아쇠 당긴 '차별과의 전쟁'

'미나리' 외국어영화상 수상했지만 美 언론들 "인종차별" 강력히 비판 獨 라디오 진행자 거센 비난에 사과 세계적 음반사들 인종주의 반대 성명



윤여정·한예리·아역 앨런 김(왼쪽부터)이 주연한 영화 '미나리'와 그룹 방탄소년단(아래)이 인종주의 논란의 중심에 섰다. 1일 '미나리'의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분류와 독일 라디오 진행자의 방탄소년단을 향한 막말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편비네마·빅히트엔터테인먼트

영화 '미나리'와 케이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대부분 대사가 한국어라는 점 때문에 미국영화인 '미나리'를 외국어영화 부문으로 분류한 골든글로브 측의 선택과, 독일 라디오 진행자의 방탄소년단을 향한 막말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등 인종주의적 시선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커져가고 있다.

●'미나리', 언어가 전부 아니다

'미나리'가 1일 미국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받았지만 관련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미 2월 초 관련 후보에 올랐을 때부터 "대사 비중의 절반 이상이 영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뛰어난 미국영화를 외국어영화상 부문으로 분류한 건 인종차별적 처사"라는 시선이 쏟아졌다. 버라이어티와 뉴욕타임스 등 현지 유력 언론 매체들의 비판도 마찬가지로였다. 수상 직후에도 언론들은 엇비슷한 시선으로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EPA)를 강하게 비판했다.

CNN은 '미나리'의 수상과 관련해 "할리우드의 인종차별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면서 "미국 인구의 20% 이상이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쓴다"고 밝혔다. CNN에 출연한 대만계

사회학자 낸시 왕 위엔은 "만일 동양인 외모라면 미국 출신이 아니라는 가정과 같다"고 비판했다.

버라이어티와 LA타임스는 인종의 다양성 없는 HEPA의 회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두 매체는 "2002년 이후 HEPA 회원 가운데 흑인이 한 명도 없다"고 썼다. 버라이어티는 골든글로브의 변화를 촉구하는 '타임즈 업 골든글로브' 캠페인에 할리우드의 많은 배우

들이 참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방탄소년단, "#인종차별 반대"

최근 독일 라디오 방송사 바이에른 3의 진행자 마티우스 마투쉬케는 방탄소년단(BTS)을 향해 "BTS는 코로나 19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바이러스"라며 "백신을 맞아야 할 바이러스"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2월 24일 방탄소년단이 MTV '언플러그드'에 출연해 그룹 월드플레이의 '픽스 유'(Fix You)를 부른 것과 관련한 발언이었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MTV 출연이 "신성모독"이라 비난했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을 비롯한 전 세계 누리꾼들은 SNS에 '#Bayer3Racist'(바이에른3의 인종주의자) 등 해시태그를 올리며 마투쉬케를 비판했다. 방탄소년단과 협업하기도 한 팝스타 할시도 "공포를 느낀다"면서 "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증오의 발언과 폭력이 늘어가는 시기에 무책임하고 역겨운 발언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바이에른3와 마투쉬케는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바이에른3는 마투쉬케가 "인종차별적 의도였던 것은 아니다"고 전제를 달아 논란을 더욱 키웠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독일 팬들도 관련 해시태그 캠페인을 이어가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니와 콜롬비아 등 미국의 세계적 음반사가 인종주의 반대 성명을 내는 상황으로까지 확산한 상황이다.

윤여정 기자 tadada@donga.com

본업보다 토크로 방송가에 신선한 활력

장항준 '입담쟁' 김이나 '공감퀵' 재재 PD는 연출·진행 '팔방미인'



장항준 감독 김이나 작사가

장항준 감독, 김이나 작사가, 이은재(재재) SBS 온라인 콘텐츠 PD.

최근 본업보다 토크쇼 진행으로 시청자 사랑을 받는 주인공들이다.

탄탄한 실력과 독특한 개성을 무기삼아 전문 방송인들이 장악한 방송가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화려한 입담을 자랑하는 장항준 감독은 앞서 MBC '라디오스타'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풍부한 영화 지식과 부인 김은희 작가 관련 에피소드를 화사분처럼 쏟아내 화제를 모았다. 절친한 방송인 송은이와 작년 8월부터 함께 진행한 팟캐스트 '씨네마운틴'이 특히 온라인상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1일부터 방송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2'의 진행자로도 나선다.

김이나 작사가도 뒤지지 않는다. 현재 방영 중인 카카오TV '톡이나 할까?'와 5월 시즌3을 선보이는 SBS 모비딕 '고막메이트' 시리즈 등을 인기 반열에 올려놓았다. 연예와 결혼 등 2030세대의 관심사를 공감 있게 풀어낸 덕분이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재재 PD는 연출자와 진행자의 자리를 오가며 방송가에서 독특한 입지를 쌓고 있다. 연출 경력을 살린 매끄러운 진행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배우 윤여정으로부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가는 사람"이란 극찬도 받았다. SBS 소속이지만 MBC '라디오스타',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EBS '자이언트 팽TV' 등 다른 방송사와 플랫폼을 무대로 맹활약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16일 정규 10집 '르네상스' 발표하는 슈퍼주니어 공격적 행보

1 TV 컴백쇼 2 다큐 공개 3 글로벌 활동 재개



정규 앨범 발표를 세 차례나 연기한 슈퍼주니어가 TV 컴백쇼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한류 제왕'로 불리는 그룹 슈퍼주니어가 대대적인 프로모션으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새 앨범 발표, TV 컴백쇼, 다큐멘터리, 자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 팬들과 만난다. 2005년 데뷔해 '2세대 아이돌'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이들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새 앨범 발표 일정이 세 차례나 연기됐던 아쉬움을 풀기 위해서다.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활동도 재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16일 정규 10집 '르네상스'를 내놓는다. 지난해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12월→1월→2월로 일정을 거듭 연기하면서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슈퍼주니어는 이에 최근까지 앨범 수록곡 일부를 다시 녹음하는 등 완성도를 높였다. "좀 더 나은 결과물"에 공을 들인 만큼 앨범 발표일인 16일 '슈퍼주니어 TV 컴백쇼'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V라이브 등을 통해 컴백쇼를 진행했지만, TV프로그램은 처음이다. 현재 한 케

이블채널과 구체적인 방송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앨범 준비 과정과 자신들의 일상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 이특을 비롯해 신동, 김희철 등 아홉 멤버들의 입담이 워낙 뛰어나 오랜 시간 함께 소통해온 팬들에게는 일종의 선물 같은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해 V라이브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명화들의 전쟁'이 최근 종료하면서 새 콘텐츠로 팬들과 만나겠다는 각오다.

글로벌 활동도 다시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표 에이전시 ICM 파트너스와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더욱 다양한 나라에서 케이팝의 진가를 과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존 플러터 ICM 파트너스 부사장은 최근 "세계 투어,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등 여러 분야를 통해 한류의 왕인 슈퍼주니어의 브랜드를 키워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이젠 '재회 콤비'가 안방극장 달군다

차태현·조인성 '어쩌다 사장' 화제 김희원·임시완 '바퀴달린집2' 출연 이도현·고민시 '오월의 청춘' 주연

'재회 콤비'들이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군다. 배우 차태현·조인성, 임시완·김희원, 이도현·고민시가 프로그램을 통해 맺은 인연을 각기 새로운 드라마와 예능 무대로 이어가면서 또 다른 '콤비 플레이'에 나선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시청자를 만난 콤비는 차태현과 조인성이다. 이들은 2월 25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tvN 예능프로그램 '어쩌다 사장'으로 손을 잡았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열고 지내는 일상을 담아내고 있다. 조인성의 첫 예능프로그램 고정 출연으로 화제가 됐지만, 두 사람이 20여년 우정으로 빛어내는 소소한 재미가 인기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질친' 호흡이 편안하게 보기 좋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덕분에 시청률(4%)과 화제성을 모두 잡았다.

이들의 조합은 새 드라마 '무빙'으로 이어진다. 강풀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는 500여여명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작으로, 두 사람은 한효주와 호흡을 맞춘다.

김희원과 임시완은 작품 속 인연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풀어낸다. 2014년 tvN 드라마 '미생'과 2016년 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 함께 출연한 이들은 조만간 촬영을 시작하는 tvN 새 예능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2'로 다시 만난다.

시즌1의 막내였던 여진구가 스케줄 문제로 출연하지 못하게 되면서 임시완이 새롭게 투입됐다. 선배 연기자 성동일과 트레일러하우스에 올라 전국 곳곳을 여행할 계획이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주로 악연으로 얽혔던 이들이 캐릭터를 벗고 과시할 실제 호흡으로 시청자의 호기



배우 조인성·차태현(위 오른쪽), 김희원·임시완(가운데 오른쪽), 이도현·고민시(아래 오른쪽)가 각기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콤비 플레이'를 펼친다. 뉴스스 사진제공 | tvN·플럼에이전시·넷플릭스

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도현과 고민시는 작년 넷플릭스 '스위트홈'으로 모은 국내외 관심을 발판삼아 KBS 2TV 드라마 '오월의 청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스위트홈'에서 남매의 애절한 애정으로 '사약 남매'라는 별칭을 얻은 이들은 새 드라마에서 이성의 로맨스를 펼친다. 1980년 5월 혼란스러운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의 5월 방영을 목표로 현재 촬영 중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마동석, 복싱 소재 실사영화 제작 준비



마동석

배우 마동석이 복싱 소재 실사영화를 만든다. 마동석은 2일 SNS를 통해 "30년 넘게 수련 중인 복싱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및 실사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모델로 한 애니메이션 이미지와 복싱 연습에 한창인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마동석은 웨이트 트레이너 시절 마크 폴먼, 고(故) 케빈 랜들먼 등 UFC 헤비급 챔피언 선수들을 지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복싱을 취미 삼아왔다. 마동석은 11월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이터널스'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대중문화 분야 입영 연기 기준은 30세"

국방부가 남성 연예인의 입영 연기 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방부는 2일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상한 연령은 30세로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기준에 준하는 연예인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에이프릴 "왕따 최초 폭로 누리꾼 고소"

최근 멤버들의 따돌림 논란과 잇단 폭로로 구설에 오른 걸그룹 에이프릴 측이 2일 관련 최초 유포자를 고소하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누리꾼은 멤버 이나은이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당시 그가 SNS에 글을 남긴 사진을 캡처해 공개했다. 이에 에이프릴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악의적인 합성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해당 누리꾼을 형사고소했다고 말했다.